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 참교육 소식 3월

## 2012년 3월 통합 235호

발행인 : 곽선희 /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 여는 글 p2
- 기획글 | 기성회비와 대학등록금 심의 학부모 참여 p3
- 어린이글 p7
- 회원탐방 | 김영희 회원을 만나다 p8
- 청소년 글 p12
- 활동사진 p15
- 책 이야기 | 생각의 좌표 p17
- 함께 할 새 가족입니다 p18
- 임재택의 생태육아이야기 p19
- 영화소모임 | '진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보고... p22
- 여행소모임 p24
- 교사 이야기 | 교과서 대금과 자율의 의미 p26
- 회원 글 |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5) p28
- 논평 p30
- 2011년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논평 p32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4
- 학부모알림란 p36
- 지부일정 p38
- 2월 회비 보고 p39



▲ 한새학교 포스코 견학

## 여는 글

함께 읽고싶은 시

### 봄이 오는 길목에서

이해인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 가지에도  
아침부터 우리 집 뜰 안을 서성이는  
까치의 가벼운 발걸음과 긴 꼬리에도  
봄이 움직이고 있구나

아직 잔설이 녹지 않은  
내 마음의 바위 틈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일어서는 봄과 함께  
내가 일어서는 봄 아침

내가 사는 세상과  
내가 보는 사람들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여  
고마움의 꽃망울이 터지는 봄

봄은 겨울에도 숨어서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시를 고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삼월은 신학기가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뭔가 산뜻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 좋을 것 같아서 찾아 보았어요. 김혜례 회원)

김정숙 (정책실장)

## 1. 기성회비란

기성회비는 인터넷 사전에서 찾으면 ‘육성회비와 같은 것으로 기성회 회원들에게 걷는 돈이다’라고 되어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기존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란 항목으로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문교부(지금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훈령으로 도입했다.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국공립 대학교마저 재정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꿈수라 보면 된다.

## 2. 법원의 판결 근거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되어있는 것을 단위학교 규약만으로 학부모 주머니를 털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여러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1999년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을 했을 때 법원은 학생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때까지는 사립대학에도 기성회비를 거두고 있다가 재빨리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수업료를 대폭 올리게 되었다. 하지만 국공립대학들 처지에서는 등록금을 올리려 해도 정부는 국비(공립대는 지자체 지원 예산)로 지원해주는 수업료는 못 올리게 하면서도 다른 공적 지원금은 늘리지 않았다. 그러니 국공립대는 편법으로 기성회비를 계속 올렸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학생들의 소송을 불렀고, 결국 이번 판결로 터져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모 국립대학 기성회 규약을 찾아보았더니,

제4조(회원) ①기성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정회원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기성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기간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로 되어있다.

하지만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학생이나 보호자는 기성회 회원이라는 것도 몰랐던 것이다. 무상급식 이후 사회적 분위기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 관심을 모아지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소송을 낸 학생들에게 법원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판결 주문에 의하면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하는 것이므로, 기성회비의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 있고, 대학교나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있어 기성회의 자금력이라는 단서를 반환의 기준으로 달며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 3. 기성회비가 쓰임새는?

기성회비는 일종의 자율협찬금 성격으로 국가가 부담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국립대가 2002년부터 9년 동안 기성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로 교직원들에게 지급한 돈은 2조8172억 원에 달했다. 2010년 국·공립대의 정교수에게 지급된 1인당 급여 보조성 인건비는 서울대 2700만원, 충북대 2586만원, 인천대 2538만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a대학 : 2010년 총장이 신입교수들에게 50분간 2차례 강의하고 100만원

b대학: 사무국장이 대학직원 대상 12시간 교육 240만원

c대학: 장기근속자 부상으로 금 15돈 지급한 곳도 있다.

부산대 경우, 기성회비의 주된 용처라 할 수 있는 운영비의 경우 전체 기성회비의 15%에 불과했다. 부산대의 2011년 기성회계 세입예산은 총 1291억1622만4000원인데 이 가운데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가 1045억4315만2000원으로 80.9%를 차지했다. 그런데 기성회비의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액수가 486억9406만2000원으로 37.7%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서 2010년 기성회계에서 부산대는 순세계잉여금을 49억 원, 경상대는 52억 원을 남겼다.

기성회회계 예산을 보면 일단 복잡하다. 기성회비는 용도도 많다. 인건비, 운영비, 장학금, 주요사업비 등의 용도가 있고 각 항목들은 다시 몇 가지로 갈래를 친다. 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올려잡고, 주요사업비는 대폭 줄여 잡는다. 국공립대학이 ‘정부정책’의 영향이 큰 일반회계의 수업료·입학금은 좀체 손대지 않고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성회비 사용에는 적극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4. 등록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되고있는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이유?

1심 판결이후에 각 국립대학들은 1977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된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 제5조와 각 대학 기성회 규약을 근거로 다양하게 지출한 경비를 합법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

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자율성을 악용해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됐다.

실제로 2010년까지 7년간 입학금 및 수업료 연평균 인상률은 4.9%였지만 기성회비 인상률은 9.5% 수준으로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대학들이 전체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기성회비는 수업료와는 달리 국고로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결산 감사 등에서 제외돼 대학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뒷주머니’의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국·공립대들은 기성회비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등록금을 편법 인상한 뒤 이 돈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다. 30년 전만 해도 전체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2010년에는 평균 84.6%를 기록했다.

## 5. 참학의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 /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 / 기성회 반환청구소송

참학태동은 1989년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 후원회를 시작으로, 6·25이후 국방비 증가로 의무교육 정상운영 불가로 교육법에서 교육재원 확보로 수익자 부담논리를 명문화시켜 80% 이상 학부모가 부담하게 하는 사친회가 있었다. 이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1962년 기성회, 1970년 육성회가 있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육성회 가입도 하지 않은 학부모에게 육성회비를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하여 반환청구소송을 했고 결국 육성회비를 폐지시켰다. 그 후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음에도 학교운영지원비란 명목으로 학교예산의 40%에 달하는 돈을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였다. 참학에서 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패소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폐지하기에 이르렀다.(부산은 2012년 전면 지원) 다시 한 번 학부모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이번 일 이후 각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 탑재해 놓았다.

단과대학별로 1-2명씩을 추천받는다 고 하니 지금까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현장을 바꾸는 일을 해 오신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대학 기성회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야 할 것 같다

## 6. 기성회비 폐지와 반값등록금이 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정부가 그동안 국·공립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다 주지 않고 기성회비를 통해 알아서 걷어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뒤 모른척해 온 셈이다.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하면, 주력 국공립대가 거의 모두 ‘지방’에 있다는 점은 기성회비 판결로 촉발된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요구가 지역대학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매년 비수도권의 우수 인재 5만 명이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바로 싼 등록금 또는 반값등록금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더 내려간다면 지역에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꾀수를 부려서 법인화를 지금 추진을 하면서 이 책임을 대학 당국에게 떠넘기고 있고, 국립대 재정회계법이라는 것을 통해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려 하는 것은 국공립대를 법인화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다리 법안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절대로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 법안을 합의의 해야 하는데,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 상한제법과, 부족한 고등교육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고등교육 교부금법,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기성회비는 폐지하고 수업료는 일정 범위 안에서 현실화하되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반값 등록금 이 문제는 이번 19대 총선의 쟁점 이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올해 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뽑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서수현 글

## 포스코와 포스텍을 다녀와서

한동안 추웠던 날이 지나가고 2월 11일 우리는 소중한 체험활동을 했다. 즐거운 마음을 품고 버스를 타고 포항에 도착하였다.

처음으로 간 곳은 포스코(포항제철)이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다. 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며 놀랐고 신기했다.

눈에 보이게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그 크기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과 큰 노력이 필요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포스코 역사관에 갔다. 그 곳엔 박태준 회장과 창립요원 34인의 명패, 그리고 엄적, 다른 유물들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6월 9일이 무슨날인 줄 아냐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1973년 6월 9일은 철의 날이다. 그 날 7시 30분 포스코의 첫 쇳물이 나왔다. 그 걸 기념하기 위해 철의 날로 정했다. 사람들의 땀이 쇳물이 되어 흐른 것이다.

다음은 포항 공과대학교(포스텍)에 갔다. 그 곳에선 한국에서 가장 큰 시계탑과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동상이 있었다. 아이슈타인, 에디슨등의 상이 있었는데 몇 개의 자리가 남아있었다. 그 자리는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의 자리이다. 그 때 우리는 미래에 우리도 노벨 수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는걸 알았다.

그 다음의 자리는 로보 라이프 뮤지엄으로 갔다. 그 곳엔 많은 로봇들이 있었다. 공부를 도와주는 아이로비큐, 로봇 애완견 제니보 등 신기한 로봇들이 있었다. 로봇은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금은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로봇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기계도 생각이 있다는걸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로보 라이프 뮤지엄에서 나와 포항가속기연구소에 갔다. 사실 여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이 곳이 있기에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우리는 체험활동을 하며 많은걸 느꼈다. 많은 곳에서 발전을 위해 힘써온 사람들의 땀은 몇 배의 좋은 결과로 태어날 것이며 그들이 노력한 만큼 이제는 우리가 노력하고 땀흘려야 되는 때이다. 우리의 노력은 미래에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서수현 학생은 울산 참학회원 자녀로서 한새학교 첫 나들이에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한새학교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딸의 졸업식장에서...

## ■ 김영희 회원을 만나다

이번 달 회원 탐방의 주인공은 김영희 회원이다.

김영희 회원은 현재 진보신당 부산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부산광역시의회 5대 시의원을 역임한 현역 여성 정치인이다.

시의원 시절 김영희 회원은 성실하고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수행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수 시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의정 능력을 발휘했다.

올 4월에 있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인 영도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가 된 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녀를 참학 사무실에서 만났다.

**Q : 어떤 계기로 참학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 1989년 5월 전교조가 결성되고 연이어 참학이 출범했죠. 당시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다양한 단체의 분들과 교류를 하던 터라 참학과도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Q : 그동안의 정치 여정을 들려주신다면?**

**A :** 부산대학교 사학과 81학번으로 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우연히 중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같은 과 선배



이기도 했던 그 분을 따라 스터디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죠. 당시 학생 운동을 하던 분들이 다 그랬듯이 저 역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항상 구속되는 것을 염두하고 활동했으니까요.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언더 그룹에서 유일한 여성 리더였는데 학교를 비울 수 없다는 책임감에 교생 실습을 가지 못해 교직 이수도 못했죠.(웃음)

학생 운동은 졸업 후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으로 연결 되었어요.

노동 투쟁의 일환으로 미성 학원에 가서 미성을 배우고 부산지역 신발 공장이나 의류 공장에서 미성사로 일을 했죠.

그 뒤 고려피혁 노동조합 간사를 시작으로 전노협 부산노련 교육부장을 거쳐 1995년부터 10년간 영남 노동 연구소에서 사무국장, 부소장으로 일했어요.

2000년에 민주 노동당이 창당되자 창당 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당에 입문한 뒤, 2004년 한진중공업 고 김주익씨 사건을 계기로 선거 본부장을 맡게 되었고 2006년에 부산 시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3당이어서 비례대표 1번은 거의 시의원이 되는 상황이라 경선이 치열했어요. 2차 투표까지 간 결과 2표 차로 제가 승리했고 부산광역시 5대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죠.

**Q : 시의원 시절 탁월한 의정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의정 활동 경험을 정리해 책도 출판하셨죠?**

**A :** 민주노동당이 부산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47명 시의원들 중에 45명이 한나라당 의원인 현실 속에서 처음에는 소외감도 느끼고 두려움도 컸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적 빛이 없으므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꺼릴 것도 없다 생각하고 소신껏 열심히 일했어요.

4년 임기 동안 기획재경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쳤으니 일이 좀 편해지려 하면 새로운 도전을 한 셈인데 고생은 했지만 얻은 것이 많았죠.

의회에서 공무원, 시의원, 민원인들과 부대끼면서 꾸준히 일기를 써왔는데 그 기록을 정리해서 작년에 책으로 펴냈어요.

\*〈나는 시의회로 출근한다〉 -산지나-

김영희 회원이 2011년 2월에 출간한 책으로, 절대 다수가 한나라당인 부산시의회에서 소수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때로는 동료 의원들과 대립하고 때로는 협조를 이끌어내기도 하면서 4년간 치열하게 싸운 과정과 결과물의 기록이다.

진보정당이 반대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 세력임을 보여주는 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Q :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도구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던데...**

**A :** 저는 영도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영도에서 졸업한 영도 토박이입니다. 부모님 고향이 제주도인데 부산으로 이주 하실 당시 제주도 분들이 영도에 많이 살고 계셔서 영도에 정착했다고 하시더군요. 형제들과 친지 분들도 대부분 영도에 사시고 결혼 후 시가 근처에서 산 8년을 제외하고는 전 생을 영도에서 보냈어요. 당연히 영도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전 제 고향 영도가 편해요.

**Q : 출마의 변을 듣고 싶습니다.**

**A :** 현재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각 정당마다 여성할당제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유권자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정 활동을 해보니 하나의 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시의회에서 그것을 견제하는 진보 정당이 정말 필요하더군요. 단 1명의 소수당 의원이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지난 4년간의 지방의회 경험을 국회로 연결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어요. 또 시청과 법원이 다른 구로 옮겨지고 부산에 동서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영도 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어느 정도 낙후된 부분이 생겼어요. 영도구는 한때 20만 인구가 사는 부자구였는데... 영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살만한 영도를 만들어야 할 책임감도 있습니다.

**Q : 현재 영도구는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A :** 진보신당이 타 야당에 비해 당세가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소수당을 너무 압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정부 들어 정치계에 횡행하던 권위적 절차는 줄어들었지만 패권적 모습을 보이는 문지마 선거 연대는 아직도 존재하죠. 소수 정당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정당 정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어요.

**Q : 엄마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아이의 반응이 궁금해요. 또 아이에게 특별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 주세요.**

**A :**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딸아이는 제 정치 활동에 긍정적인 힘을 주는 존재입니다. 제가 바쁘다보니 엄마보다 아빠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지만 엄마의 일을 이해해줘서 항상 고마워요.

저는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생각을 정립하는 학창 시절을 보냈음 합니다. 공부에 얽매어 자신의 재능과 꿈을 놓치는 일은 없었음 하는 거죠.

우리 교육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되었음 합니다.

**Q : 건강 유지 비결이나 취미가 있으신지?**

**A :** 건강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데...술, 담배를 안 하고 피곤하면 무조건 쉬어요. 또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걷는 건 많이 하네요.(웃음) 대중교통 이용은 제가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나면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죠. 1년에 50권 이상의 책을 보는데 도서관에 자주 가고 독서토론 모임도 하고 영도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봄, 가을 문학기행에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Q : 끝으로 참학에 한 말씀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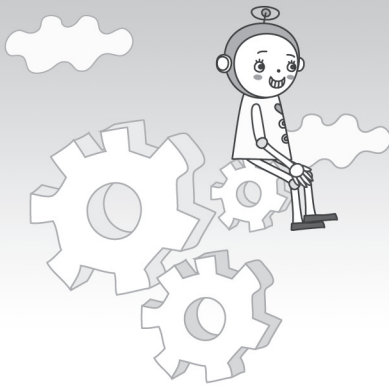
**A :** 얼마 전 참학 소식지를 봤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이규남 부지부장님의 글을 읽으며 제 의정 활동이 생

각나 추억에 잠기기도 했죠. 소식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탐방 프로그램에도 가보고 싶고...제 아이 같은 고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한세 학교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음 해요.  
우리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뒤 필자는 김영희 회원의 저서 <나는 시의회로 출근한다>를 읽었다.  
서문에서 그녀는 자신의 책이 의정 활동 기간 동안의 일기를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기를 정리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책의 내용이 방대하고 자세했다.  
그것은 평소 그녀가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며, 기록의 어려움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성실하고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그것은 인터뷰에서 그녀에게 받았던 필자의 느낌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인해 온 나라가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의 이합집산과 말잔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영희 회원은 정의를 세우며 국민을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로 그 소용돌이 속에 스스로를 내던졌다.  
따뜻함과 진정성을 갖춘 정치인, 김영희 회원의 건승을 바란다.

〈정리 : 신지원〉



## <청소년 글> 포항 탐방 후기

정 유 정 울산여자고등학교

고3을 앞둔 2월, 예비고3에게는 어느 때보다 황금같이 써야할 시간이다. 하지만 나는 내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고3에 대한 불안감으로 방황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금요일 어느 날 어머니께서 “동생과 함께 포항 탐방활동 가볼래?” 라고 하셨다. 처음엔 갈등했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냥 마음이 가고 싶었다. 그냥 가야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남동생과 함께 포항탐방을 하러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타고 포항으로 향하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다. 지금 내가 방황하고는 내 모습 때문에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한 버스에 타 작은 여행을 하게 되어 긴장되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건 포항에서 보게 될 새로운 지식과 풍경에 설레고 있었다.

그 설렘을 안고 처음 도착한 곳은 포스코였다. 제철회사. 포스코가 대단한 회사인 줄은 알았지만 철을 만드는 회사란 것 외에는 다른 지식이 없었다. 하지만 견학을 하면서 가이드 선생님께서 약간의 전문지식을 설명을 듣고 그것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하니 포스코의 과학기술의 눈부심과 대단함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먼저 버스로 전체적인 공장 외경을 구경하고 후판 공장내부에 들어갔다. 밖의 추위와는 상관없이 공장내부는 철판의 뜨거운 열기로 후끈했다. 공장의 엄청난 소음과 기계의 거대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뜨겁게 달구어진 철판이 물과 만나 거대한 수증기를 만들어 냈다. 철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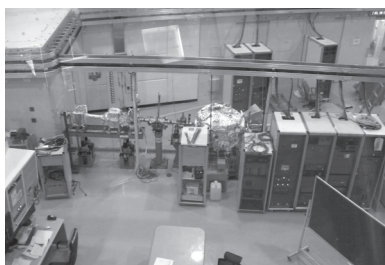
따뜻했던 내부공장을 아쉽게 나온 후 우리는 포스코 박물관으로 갔다. 포스코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의 생기는 과정을 보면서 포스코의 열정과 그 땀방울이 얼마나 값진지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열정과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열정과 도전을 이어받고 싶단 생각을 했다. 그게 지금 나한테 절실히 필요했기에 더 가슴에 와 닿았을지도 모르겠다.

포항공대의 학생 수에 비해 캠퍼스가 커서 놀랬다. 그만큼 연구기관이 많다는 의미니까. 그곳에 다니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나도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교 안에 있는 78계단을 걸어 올라가



며 나도 이런 계단 하나하나씩 잘 올라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작은 다짐을 하게 되었다. 힘들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계단 마지막의 그 무언가를 위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인슈타인, 막스플랑크, 뉴턴 등의 동상과 한국의 미래 과학자 동상이 놓인 곳에 갔다. 훌륭한 과학자들의 업적을 설명 듣고 난 후 비어있는 미래과학자 동상 위에 사진을 찍었다. 다들 자신의 작은 꿈을 안고 그 위에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도저히 용기 안 났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된다.



그 후 우린 로봇연구소로 갔다. 인류의 삶에 로봇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로봇이 우리의 행동에 반응하고 춤을 추는 등의 모습에서 로봇의 친숙함과 그 기능과 성능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몇 분정도 로봇과 함께 놀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로봇과의 함께하는 시간은 다음 일정 때문에 적어졌다. 다음코스는 원래 일정에 없었다고 한다. 운이 좋게도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그곳은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이다.

사실 포항공대에 방문한다는 그 자체로 설레었으나 방사광 가속기연구소에도 가게 되어 날아갈 듯 기뻐다. 평소에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평소에 방사광가속기연구소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큰 행운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 게다가 원래 근무 날이 아닌데도 우리들을 연구소를 보여주기위해 그 곳에서 일하시는 연구원 분께서 나와주셨다. 너무 고마운 일이었다. 그 분께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그 방사광가속기 연구실 내부를 들어가 보았다. 거대한 기계들이 있고 컴퓨터 계기판에 여러 수치들이 나와 있었다. 그 기계들이 전자를 가속하여 빛을 만든다니.... 이미 그전에 책으로 이론으로는 접해보았지만 실제로 내가 보는 눈앞의 기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과학도의 길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었다. 신세계의 체험이었다.

이렇게 많은 체험들을 하고 아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게 되었다. 이 날 하루가 꿈만 같았다. 학교에서 학문으로만 배운 지식을 실제로 산업에 응용되어 사용되는 모습을 보니 짜릿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후 가이드 설명을 듣고 내 눈으로 보니 더 깊게 포항제철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이론과 실재가 합일 되는 것이 신기했다.

가이드 선생님 특유의 재미있는 유머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긍정의 에너지를 얻었다. 포항에 다녀와 나에게 필요한 철이 들고 왔다. 완벽하게 들진 않았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일부를 얻지 않았나 싶다. 그 일부가 있었음에도 아직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탐방이 분명히 방향터널의 탈출구로 가는데 표지판 역할을 해준 건 분명하다. 이번을 계기로 탈출구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고 그 탈출구 밖에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꿈틀거리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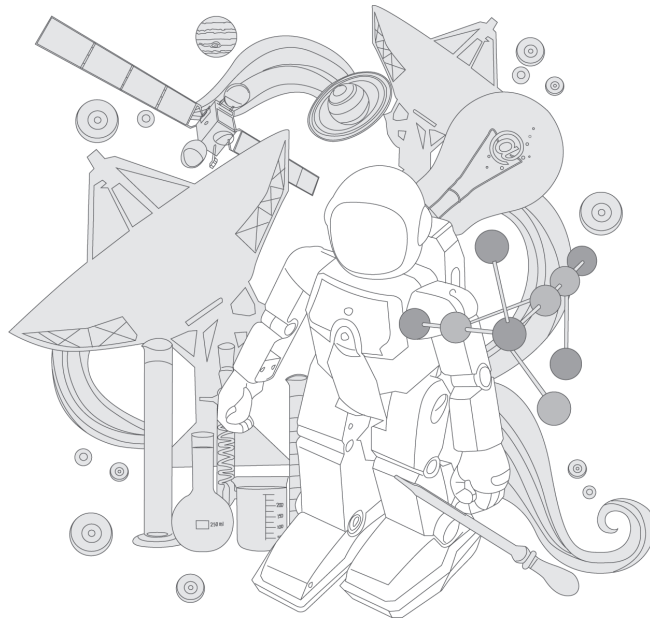


이 꿈틀거림이 앞으로 남은 고3생활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체험활동을 간 어린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친구들이 포항에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철이 들어 왔을 것이다. 그 에너지로 탐방활동에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포항체험활동의 아쉬움을 달래 본다.

〈유정이는 울산회원 자녀인데 고3을 코 앞에 두고 동생을 데리고 참가하였어요. 이미언 부산지부 회원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고 마침 과학을 전공하고 싶은 (이미언 쌤은 지구과학이 전공임) 유정이는 카메라로 전체 그림을 담고, 동생을 잘 챙기더라구요. 중학생이냐고 물을 만큼 동안이었구요. 가속기연구소가 가속도 연구하는 곳인줄 알았던 나에 비해 “평소 입자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가속기연구소에 와 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하는 유정이는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토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 연구소를 한달음에 달려와 설명, 자료까지 듬뿍 안겨준 분은 신현자 경북지부장과 남편 유인하 선생님(가속기연구소 연구원)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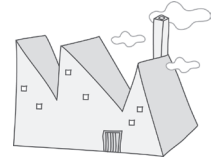
참학의 힘을 보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부장님, 사무국장님까지 참여 해 주신 울산지부에 감사드립니다. 기획부터 안내, 정리까지 다 맡아 해 주신 장유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활동사진

### 한새학교 풍경들 '포스콘와 포스텍'



▲ 포스코 역사관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 예쁜 모습으로^^



▲ 포스텍 입학의 꿈을 안고



▲ 열강하시는 장유성 팀장

## 활동사진



▲ 가속기연구소에서 설명하시는 유인하선생님



▲ 조명숙 고문님 아드님 결혼식에서 만남 참학 식구들(이종명, 박선희, 최점순, 김정숙, 김옥순, 윤내경, 채승영, 류봉심)



▲ 전국교수노조 대의원대회와 '최고의 교육복지는 대학교육혁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이다'를 강의하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과 함께 (장은숙전국회장, 박선희, 윤영근, 장유성, 김정숙)



▲ 초등예비학부모교실- 책과 아이들(장유성 강의)시의회 주최 학교폭력 토론회: 이규남 토론



## 생각의 좌표 / 홍세화

손재광

이즘 어느 젊은 문화평론가는 일간지 칼럼에서 지금의 폭력적이고 거칠어가는 세상에서 야기되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예컨대 학교폭력, 청년실업, 교육전쟁, 비정규직 등의 다양한 문제를 ‘토크 콘스트’와 같은 말랑말랑한 분위기 속에 등장한 멘토들이 매끈한 소통과 공감의 형식으로 개인의 자기계발과 혁신의 문제로만 환원시켜 버리는 것을 꼬집은 적이 있다.

〈생각의 좌표〉에서 저자는 딱잘라 말한다.

교육, 의료, 주거, 실업, 노후문제 같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모든 구체적인 요인들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속에서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저당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바로 여기 이 시대에 정치의 고귀함이 자리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국 지금 이 사회의 불평등과 고통, 그리고 불행을 끊임없이 줄여나가는 힘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와 ‘분배의 제도화’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 우리들 국민의 비판적 안목과 견제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정확하게 돌아와야 할 곳이 바로 다음 문장이다.

“내 생각은 어떻게 내 것이 되었을까?”

이 책 맨 첫 장에서 던진 이 엄중한 질문에 대하여 저자는 다음 네가지 경로를 들어 답한다.

1) 폭넓은 독서 2) 열린 자세의 토론 3) 직접 견문 4) 성찰

.....안타깝게도(!) 나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껏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만 답이 나왔다.

.....오로지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으로 줄 세우는 이 시대 한국의 제도교육 속에 나도 우리 아이도 갇혀 있었으니(!)

사실 지금 생각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면서 고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습이 늘상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작가는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는 실제 주체인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갖춰 나가면서도 기존에 형성된 생각을 끊임없이 수정하여 나의 주체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인도, 내삶의 주인도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30대 초반에 이미 사회를 잃어버린 이방인으로 파리에서 20년 세월을 보낸 뒤 돌아온 한국 사회에서 자신만의 편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사회민주주의자로, 실존주의자로, 휴머니스트로 이른바 ‘폴레랑스’를 얘기해 온 저자의 삶의 궤적과 신념이 오롯이 배어있는 이 책에서 진정한 우리들의 멘토와 소통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 함께 할 새 가족입니다

(2011년 7월 ~ 2012년 2월)

### ♥ 조정화

김옥랑 회원의 소개로 가입했습니다. 여행 소모임과 회원 만남의 날에 관심 가지고 문의도 하셨지만 아직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얼굴 뵈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 김영희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부산시의회에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고 이번 달 탐방 주인공 이십니다.

### ♥ 이주현

식생활교육 남구 설명회에 오셔서 식생활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가입하셨습니다. 2월에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예쁜아기 한 번 데리고 나오세요!!

### ♥ 최지선

최진경 회원 소개로 가입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으로 학교현장을 바꾸는 일에 적극적이십니다. 넘주통합당 영도구 예비후보로 신청해 놓은 김비오씨가 남편입니다. 야권단일화가 민주적으로 되길 기대합니다.

### ♥ 김동희

동래생협 이사장이십니다. 당연히 우리회원 인줄 알았더니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협의 든든한 리더로서 전국적인 활동 하고 있습니다.

### ♥ 김영숙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십니다. 푸른바다생협 전 이사장이시구요. 신입 회원 5명 모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셨는데...

### ♥ 조병준

올해 초등 1학년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말 그대로 새내기 학부모입니다. 책과 아이들 회원으로 강정아 회원 권유로 참학 가입하고 예비학부모교실 강의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모임이 발걸음 할 수 있게 활동 기대합니다.

### ♥ 이내훈

대학생과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학교일로 상담을 하러 사무실로 오셔서 가입하셨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활동에 많은 관심 보이셨습니다.

### ♥ 이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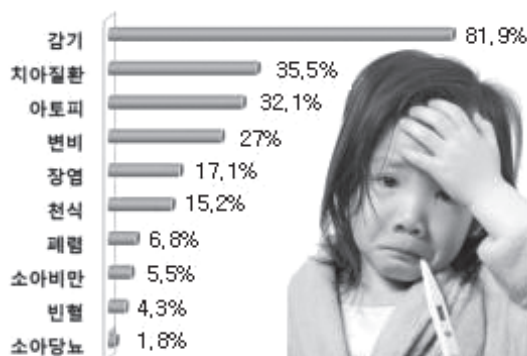
울산회원으로 활동하다 해운대로 이사를 오시면서 부산지부로 옮기셨습니다. 올해 초등 1학년 입학하는 자녀와 유치원생이 있구요.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가지고 얘기 나눌 기회 있길 기대하셨습니다.



## 엄마 왜 나는 자꾸 아파요?

임 재 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요즘 엄마들,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들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다. 예전에 내가 클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아팠던 것 같은데,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픈 것일까? 내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아이가 아플 때는 정말 고통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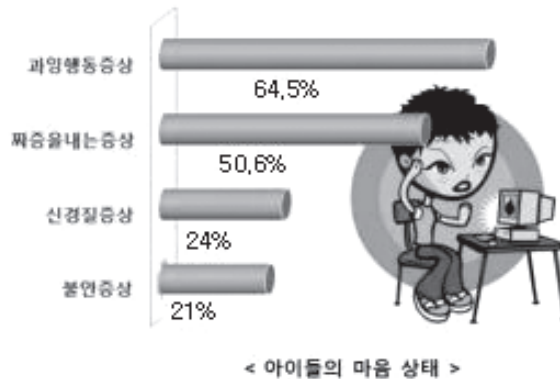
< 아이들의 몸 상태 >

엄마 자신이 볼 때는 내 아이만 아픈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이 아프다고 보면 거의 틀림 없다. 최근 어린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질병을 조사한 한 연구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가를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아이들의 몸의 병은 어린 아이 10명 중 8명 정도(81.9%)가 일 년 내내 감기를 달고 있고, 노인성 질환인 폐렴(6.8%)은 물론 천식(15.2%)을 앓고 있으며, 치아질환인 아이도 35.5%나 되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32.1%나 되고, 소아비만 5.5%, 소아당뇨 1.8%, 빈혈 4.3%, 변비 27%, 장염·설사도 17.1%로 나타났다.

한편 이 연구에서 보고된 아이들의 마음의 병은 부산하게 움직이는 과잉행동증상 64.5%, 불안 증상 21%, 신경질 증상 24%, 짜증을 내는 증상 50.6%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이들의 정서불안, 스트레스, 과잉행동, 성격장애 등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출산 및 태내의 환경은 양호한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4명으로 2005년 1.0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심각하며, 출산율 저하 못지않게 심각한 징후는 불임률 급증이다. 지난 10년 사이 2.5배 증가하여 2009년 불임부부 약 140만 쌍으로 기혼부부의 약 17% 정도다. 요즘 젊은 부부의 양수 오염은 물론 정자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정자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유산, 사산, 조산 등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숙아와 장애아의 출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금 어린 생명들의 태내의 환경은 물론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아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런 현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사태와 맞물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는 치료와 보호라도 받을 수 있지만, 빈곤계층의 아이들은 질병과 장애 속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라의 장래 일꾼인 아이들이 병들면 그 나라는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없다.

###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천박한 육아환경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왜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가?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 ‘엄마 양수가 오염 되어서’, ‘배내통을 제대로 누지 않아서’, ‘아이가 흙을 피해서(아토피 兒土避)’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토피는 역천병 내지 문명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진단이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병은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어겨서 온 것이다.

사람은 본래 부모의 몸을 빌려 땅에서 나서 하늘에 명을 걸고 천지부모의 이치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이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지기와 천기를 받아 생기 있게 살아가면 천명, 즉 125살까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사람의 병은 천치인 및 심기신의 조화와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한다. 아이들의 아토피를 비롯한 모든 병은 천인합일이 깨지고 신토불이가 어긋나면서 생긴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든 병은 어른들이 자연의 순리와 조상의 지혜를 저버리고 살아온 업보이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의 질병은 급성 전염병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질환, 비만, 암 등 만성 생활습관병이다. 사람은 몸에는 독소,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질병이 오게 마련이다. 아이들의 질병 역시 잘못된 식



의주 생활습관의 산물이다. 넓게 보면 아이들의 질병과 전지구적 생명위기의 주범은 반생태적인 산업문명이다. 천박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과학과 권위와 법을 내세운 영리적? 반생명적인 잉태, 태교, 출산, 수유, 육아 및 교육 환경은 갈수록 더 악화되면서 아이들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신혼방이 불임방일 정도로 오염된 잉태환경, 산모의 욕심과 상술의 태교용품이 판치는 태교환경, 임신중 각종 검사와 유도분만? 제왕절개가 성행하는 산과병원, 모유수유보다 분유수유가 좋다고 선전하는 분유회사, 보행기와 의자와 장난감에 갇힌 놀이환경, 좌뇌교육에 치중하는 콘크리트 유치원 등은 모두 어린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된 다른 요인은 만성적인 운동부족,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의 범람, 오염된 먹을거리, 경쟁중심의 천박한 양육문화와 교육풍토, 게임중독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게임중독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정신적 황폐화로 인한 우울증, 반사회적 인격 장애, 비만 등을 동반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아이들 질병의 근원은 '독의 홍수'를 가져온 죽임의 산업문명이다. 이런 산업문명을 산업혁명이라고 칭송하면서 인간의 질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만들고 있다. 한편 20세기 의학과 약학의 발전은 급성 전염병으로 인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많이 죽는 세상을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같은 과학기술의 위력은 어린 아이를 낳아 키우는 전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쳤는데, 아이들의 임신과 출산은 병원의 의사가 담당하고, 수유는 분유회사가 담당하고, 양육과 교육은 아동심리학자와 유아교육전문가들이 담당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런 방식은 언뜻 보기에 매우 과학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판명되고 있다.

### **‘오래된 미래의 과학’에서 배우는 아이 치유의 길**

다시 말해서 병원과 약국과 분유회사와 공장식 유아교육 체제가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반생명적·비과학적 접근이라는 사실이 구과학(Old Science)이 아닌 신과학(New Science)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믿어왔던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침대는 미신’일지 모른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야생의 동물들은 천명대로 살지만 사람이 붙들여 사육하면 병이 나서 천명대로 살지 못한다. 내 아이 병나지 않게 키우는 지혜 역시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에서 배워야 한다. 내 아이를 ‘양계닭’이 아닌 ‘토종닭’처럼 키우는 것이 내 아이 병나지 않게 키우는 최선의 길이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자연과 놀이와 아이다움을 되찾아주는 것이 아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최선의 길이며, ‘오래된 미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소모임

## '진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보고...

글 : 백미영

2월 영화모임으로 일본영화를 봤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건 아니지만 칸영화제에서 상도 타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감독을 골랐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일본영화를 잘 안 봐서...

많은 생각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일본영화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리 반대하고 그전에 불법적으로 볼 때는 많이들 봤다.(특히 러브레터)

그러나 막상 수입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별 관심 없고 일본문화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 흥행도 거의 다 실패다. 왜일까?

이유는 내 주위에서도 찾게 된다. 난 일본영화를 좋아하다보니 보러 가자고 하면 친구나 주변 사람들 모두 일본영화는 왠지 재미없다고 안 간다고 한다. 대부분 그렇다.

헐리우드에 길들여져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에 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 때문예? 조금 다른 문화 때문예? 정확하게 뭐라 말을 못하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일본영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우리와 다르면서도 비슷한 면들이 많고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영화도 잘 만든다. 지금은 일본도 영화 하기가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다양성에서도 더 다양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막장드라마 같은, 실없는 코미디코드 같은 것들은 잘 없다.

우리가 본 '진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도 따뜻한 가족영화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해봤자 별 관심도 못 받고 흥행도 참패할 그런 영화 내용.

물론 이 영화가 일본에서 얼마나 흥행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일본영화 마니아들도 있고 세계적 감독이라 부산국제영화제 때에는 매진행렬이었다.

코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은 '아무도 모른다', '공기인형'으로 유명하다. 침울하거나 서늘하거나... 그렇다. 세상을 보는,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앞전에 '걸어도 걸어도'도 가족영화였으나 조금은 냉정하고 차가웠다. 세상에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가족들이라는...

그러나 이 영화는 귀엽고 따뜻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형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와 가고시마에서 살고, 동생은 아버지와 후쿠오카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인 초등학생 6학년인 형은 가족이 다시 오사카에 모여 단란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그런 형은 자기 동네에 매일 가루를 뿌리고 있는 화산이 폭발해 이사를 가게 돼 가족이 다시 뭉쳐 살기를 바라고 동생은 싸우는 부모 모습이 싫어 그리 원하지 않고, 형은 형답게 조금 성숙하고 동생은 마냥 쾌활하다.

부모들 모습들은, 외할아버지는 노인일자리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큰 시장의 자본에 밀려버린 오랫동안 해온 떡 만

들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외할머니는 홀라댄스를 배우러 다니고, 엄마는 평범한 아줌마, 마트에 취직해 동창모임에 나간다. 아버지는 주위에서 보면 철없는 인디음악을 하는 한량처럼 보인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신나게 놀면서도 꾸중도 듣고 장난도 치고 예쁜 선생님을 짝사랑도 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들이다.

모두가 아주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들과 같은 모습들이다.

그리고 각자 기적을, 꿈을 꾸다...

엄청 빠른 두 신칸센 열차가 만나는 곳에서 교차하는 그 순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형은 형대로 친구들과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작당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꾸미고, 동생은 동생 친구들과 항상 모이는 친구집에서 계획을 세운다. 돈을 마련하고 기적을, 꿈을 정하고 그 지점으로 향한다. 그리고 떠나는 길에서 자연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짓말 같은 꿈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빌면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런 순수한 꿈...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은 빈다.

강아지가 살아나게 해 달라고, 아버지가 빠짱고에 안 가게 해 달라고, 그림을 잘 그리게 해 달라고, 다리를 튼튼하게 해 달라고, 유명한 배우가 되게 해 달라고...

소원들을 빌고 유쾌하게 집으로 돌아와 꿈에 부풀은 밝은 표정과 마음으로 영화는 끝난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다... 좀 더 자라고 성숙해지고 도전하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졌으니까... 꼭 꿈을 이루고 기적을 이룰 것이다...

우리 어릴 때에도 저런 황당한(?) 사건을 꾸미기도 하고 꿈꿔 보기도 했던 것 같다.

또 친구들과 꼭 모이고 하는, 어른들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비밀장소 같은 것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저 아이들처럼 행동으로 움직여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뭔가 꿈이나 기적을 많이 꿈꿔보지도 않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괜히 꿈꿔 보고 기적이 일어나길 빌어본다.

그러려면 저 아이들처럼 뭔가 작당을 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스펙에 찌들지 말고 저런 꿈들을, 기적들을 많이 꿈꿔보는 세상을 바라본다...





## 여행 소모임 '사노라면' 에서 오어사를 다녀왔어요

장 유 성



함께간 김혜레, 임주연

여행 소모임 [사노라면] 회원들이 제1차 문화 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보석처럼 숨어 있는 신라 천년의 사찰 골굴사, 기림사, 오어사를 가슴 깊이 담으려 2월 3주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하늘이 파랗고 또 파랗던 날. 나를 살리는 주문 하나 찾으러 허위허위 길 떠났지요. 경주 보문호수를 지나 감포 가는 길로 접어들어 추령고개를 넘습니다. 깊은 산 속. '우거진 숲이 내 속을 꿰뚫습니다. 오라고 오라고. 아, 저 숲에서 쉬는 숨은 얼마나 벽찰까요? (박시현, 감포 가는 길 시구 인용)

안개 가득 품었다 내뱉는 (토함) 옆에 달 품은 (함월) 고운 산. 그곳에서 오직 불법의 골수를 품은 산골에서 커도 절이고 작아도 역시 절이라며 높이를 달리하며 앉아 계신 여러 부처님들을 뵈었습니다. 가장 높이 앉아 계신 마애아미타불을 올려다보며 너도 아미타불. 나도 아미타불. 우리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여. 서방정토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

천축국에서 오신 광유화상이 기림사와 함께 창건한 천년고찰 골굴사는 불국사보다도 200살이나 더 많지요. 골굴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잘 살피고 조화롭게 이끌어나감으로써 도를 이루려는 선무도의 본산이기도 합니다. 화랑사관학교와 선무도 템플스테이가 유명한 골굴사의 『움직이는 선(행선)』의 향기는 현대인들의 갖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신체적 불균형을 치유하여 건강한 마음과 몸을 갖게 합니다.

선무도 시범 공연도 뒤로 하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음을 확연히 증언한 동아보살상 등 여러 귀한 인연은 찬바람에 놓아두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인도의 기원정사의 기림을 사찰명으로 한 기림사로 발길을 돌립니다. 크게 팔 벌린 보리수나무도 좋고 대적광전 꽃창살도 좋고 오백나한도 좋고 삼천불상도 좋지만 관음전 천수천안 부처님 앞에 한참이나 머물렀습니다. 아! 부처님은 천 개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못 중생의 고통을 살펴보고 천 개의 손을 들어 일일이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구나. 부처님은 내 마음의 상처는 무슨 눈으로 내다보시고 어떤 눈으로 치유해 주실까?

부처님 계신 곳마다 몸에 완전히 배인 자연스런 자세로 참 예쁜 삼배를 올리시던 임주연회원님과 김혜레 회원님의 공덕에 힘입어 오! 그 맛있는 절 밥 공양을 하였지요. 삼세 공덕 쌓은 두 분 덕이지요. 아이쿠! 오늘 따라 제도 많네요. 정갈한 사찰 음식. 고기보다 맛있는 살진 나물 푸지게 넣고 고추장 듬뿍 넣고.... 중생은 단지 두 개의 손으로 한가득 비벼, 아귀 아귀 태산만한 배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중생은 오직 먹여주는 공덕 뿐..... 게다가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입과 위가 때 아닌 호사를 하였습니다. 공양간을 나올 때 제일 크고 낭랑한 목소리

로 나무관세음보살 마하살.....

그래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요. 참학 여행모임 ‘사노라면’은 그 좋은 날에 만날 세상 사는 맛과 그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는 정을 찾아갑니다. 배 든든 하면 뭘들 못하리까?

이제 이번 여행의 주제가 있는 오어사로 갑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이 태어나신 문충마을을 지나 포항-울산 고속국도 공사가 한창인 길을 지나 우리나라 최고의 방생불사 터인 오어사로 갑니다. 원효 해공, 범 높은 두 스님이 생명 살리는 내기를 하신 곳. 살아 해엄치는 저 고기는 내가 살린 고기라며 실랑이 하셨다는 그 절. 삼국유사에 실린 절 이름이 현재도 그대로 내려오는 몇 안 되는 유서 깊은 절에 갑니다. 오어사라고 절 이름이 지어진 것은 원효와 해공이 이 곳에 수도하면서 서로 법력을 다투다가 개천의 고기를 살려내는 내기를 했다 한다.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살아나자 서로 다투어 그 고기를 자기 고기라 고집했다는데서 지금의 이름이 (나 톸, 고기 魚) 생겼다고 하네요.

오어사 앞의 오어지는 이런 저런 연유로 살리려는 생명들이 가득해 보입니다. 다른 회원님들이 자장암에서 108배를 드리는 동안 퐁퐁 열어 큰 돌덩이도 그대로 달라붙은 오어지를 응시하며 그 옛날 원효 해공 두 스님은 어떻게 그 고기를 살렸을까? 어떤 주문을 외었을까? 생명을 다시 살린 그 주문을 배워낼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기도 생명이고 나도 생명인데 고기가 다시 살아나듯,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작은 나, 이 세상의 누구라도 그렇듯이 이 풍진 세상의 탐진치에 미혹된 나,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가득한 나를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아! 오어지에서는 나도 펄떡펄떡 다시 살아날까요? 나를 살리는 주문, 무어라고 될까요? 한참을 중얼거렸지요. 출렁이는 구름다리 이쪽 저쪽을 거닐며, 두꺼운 얼음장 속에서 유유히 떠다닐 이미 살아난 생명들을 생각하며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주문, 입술 달짝이며 악착같이 그리고 간절하게 외워냈지요. 오어지 진압도로 마다 가득한 차량들. 그 차량을 타고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생명 살리기 위해, 생명이 살아 난 절과 호수를 보기 위해 저마다의 영험을 바라며 오신 또 다른 생명들을 보며 살자고, 우리 같이 살자고 누구나 다함께 살자고 외워냈지요.

이것으로 참학 여행모임 [사노라면]의 제1차 문화기행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아쉬워 오는 길에 감은사지 큰 탑들도 보고 동해 바다 감포. 대왕암이 보이는 해안가를 거닐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의 기대하지 않았던 여행팁이었습니다.

눈도 마음도 보다 더 풍족해진 [사노라면] 여행팀은 이제 날 저물어 떠나 온 도시로 되돌아가야합니다. 온 길을 되밟아 다시 도시로 조금씩 조금씩 죽으러 가야합니다. 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또 한 달 뒤 삼월 세 째 일요일 봄이라곤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는 겨울 속에서도 기어코 오고야 말 봄을 생각하며, 저 멀리서 이미 길 떠났을 봄을 만나러 갈 [사노하면] 봄기행을 기다리며 그 때까지 오늘 찾은 행복을 하루만큼 조금씩 쪼개어 맛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오어지에서 된 ‘나를 살리는 주문’이 무엇이었나고요? 펄떡펄떡 살아나는 주문은 어떤 것이냐고요? 그래요. 가르쳐드리죠. 다음 [사노라면]의 문화기행에 오시면 글자 하나하나 토씨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알뜰 살뜰 말씀드리지요.

[사노라면]은 산 넘어 물 건너 들판 지나 펼쳐진 풍경과 문화와 예술을 찾아다니며 사람사는 진한 정과 세상사는 멋진 맛을 찾는 사람들의 여행 모임입니다.





## 교과서 대금과 자율의 의미

노영민 (고등학교 교사)

나는 2011학년도에 학교에서 교과서 업무를 맡아 했다. 지난 9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과서 선정, 주문과 배부 일이 2월 15일 신입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함으로써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새 교과서를 받은 아이들은 지금쯤 부푼 꿈으로 새 학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64종의 책과 2종의 CD를 80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배부하는 일을 끝낸 나도 지금 한숨을 돌리고 새 학년을 설계하고 있다. 교과서 대금 정산하는 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힘 쓸 일은 어느 정도 끝낸 셈이다. 일을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적어볼까 한다. 글을 쓰려고 구상을 할 때 생각한 글의 제목은 '자율에 묻은 독'이었다. 글을 쓰다보니 그 제목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위의 제목으로 바꾸었는데,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본디 불이려는 제목을 염두에 두면서 읽었으면 한다.

내가 이야기 하려는 것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의 대폭 인상과 그것을 통해 '자율'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과목, 내용 등이 해마다 다르고, 종이의 질, 인쇄 상태 등이 매년 나아지고, 무엇보다 물가 상승의 문제도 있으니 작년과 올해의 교과서 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대동소이한 바가 있으니(비교해 보려는 2학년의 경우 2011년은 총 31권, 2012년은 30권) 비교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2학년 인문 계열로 진급하는 학생의 경우 2011년에는 7만 원 정도였는데 2012년에는 11만 원 정도다. 자연 계열을 선택한 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7만 8천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크게 올라 13만 5천 원 정도다. 그 상승률을 계산해 보니 인문 계열

의 경우 전년에 비해 약 57%, 자연의 경우 무려 73%다. 실로 경악할 정도의 상승률이다. 작년 물가상승률이 4% 언저리, 도대체 교과서 동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폭등이라는 말에 값할 만큼의 엄청난 가격 상승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위에서 이미 말한 과목과 내용의 변화, 종이 질과 인쇄의 개선,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요인인데 비해, 꼼꼼하게 살펴보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 다른 아님 작년 2011년도 2학년(올해 3학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데 비해 올해 2012년 2학년(작년 1학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것, 그리고 그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교과서 발행제의 변화다. 문제의 핵심에는 교육부 주관의 국정 내지는 검정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해서 시도교육청 주관의 인정 교과서 발행제의 대폭 채택이 있는 것이다.

줄속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그에 따른 교과서 개편으로 폭증하는 교과서 검정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부가 그 업무를 지방 교육청으로 어쩔 수 없이 이관했다는 등 많은 논란이 있지만 나는 교육청 주관의 교과서 인정제 채택을 중앙 집권성의 완화와 지방 분권의 강화, 자율성의 확대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바로 교과서 가격의 폭등이다. 제품의 이름을 바꾸고 포장지를 바꿔 가격을 올리는 교활한 상술의 교과서판 재현이다.

물리1(2,910원에서 12,000원), 화학1(2,660원에서



10,000원), 지구과학1(2,830원에서 12,000원), 생명과학1(종전 '생물1' -3,170원에서 12,000원), 미술과 삶(종전 '미술과 생활' -1,850원에서 10,000원), 음악의 이해(종전 '음악과 생활' -2,060원에서 4,200원), 운동과 건강생활(종전 '체육과 건강' -2,930원에서 9,000원). 엄청난 가격 상승이다. 물론 새로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초기 비용의 문제, 다양해진 교과서 종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량 발행이 불가피해진데서 오는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새로 나온 교과서의 내용과 종이와 인쇄 질이 대폭 개선되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가격 인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폭등에 가까운 교과서 가격의 인상을 보면서 나는 교과서 발행제의 변화와 자율의 관계, 더 좁혀서 말하면 자율이라는 말의 쓰임새와 그 속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졌다. 교육부 주관의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 발행 체제보다는 교과서 발행의 교육청 주관 인정제 채택으로 교과서 발행의 자율 폭이 확대되었다고 나는 본다. 교과서의 자유발행제까지는 아니지만 자율의 확대, 다양성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변화가 있다고 나는 보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 발행제의 변화와 교과서 대금의 대폭 인상을 보면서 자율(자유)의 향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든다는 말을 수긍하면서도 자율이라는 말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오랜 억압의 시대를 지난 뒤 우리 사회에서는 '자율(자유)'이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약자가 바라는 자율은 늘 의심받고 그래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자(권력, 자본)가 주장하는 자율은 많은 문제 제기와 반대에 직면하면서도 끝내 관철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과 자립형(자율형) 학교, 각종 상품들의 가격 자율화가 전자의 경우라면, 교사, 공무원들의 정

치적 자유 보장과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 집회, 보충수업과 야간학습의 진정한 자율은 언제나 의심받고 거부당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당장 학교가 무너지기라도 할 듯이 -만약 그런 학교라면 당연히 무너져야 하는 것 아닌가- 온갖 과장과 거짓 논리를 들이대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것을 바라.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은 정말 무너지는가. 교권을 위협하는 것은 언제나 학생 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기득권자인 그들이었지 결코 학생들이 아니었다.

내가 너무 단순화 시키는 것이 아닌지 모르지만 전자의 자율화가 강력한 시장화를 의미한다면, 후자가 요구하는 자율화는 인권 확대의 열망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전자의 자율이 기득권의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면 후자의 자율은 기득권에 대한 견제와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일까, 강자들이 자율이라는 말에 이중 잣대, 아전인수식 해석을 들이대는 것은. 어디 그 뿐일까. 강자의 법과 약자가 바라는 법, 강자의 정의와 약자의 정의, 강자들의 민주주의와 약자들의 민주주의 ...

201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가격의 대폭 인상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교과서 발행의 인정제 채택을 교과서 발행 자율화의 확대로 볼 때 이때의 자율은 아무리 생각해도 교과서 내용과 서술의 자율이기보다 강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가격 자율화로, 결국은 엄청난 교과서 가격 폭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같은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젖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율이라는 말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이토록 다르게 변신하는 것이다.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겠지만 이번 교과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나는 자율, 그 듣기 좋은 말에도 독이 묻어 있으니 너무 쉽게 현혹되지 말고 그 의미를 꼼꼼 새겨 제대로 써야겠다고 다시 마음먹었다.



## 이규남의 학교운영위원 분투기 (5)

### - 급식실 수저사건 -

이 규 남

운영위원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면 학교를 한번씩 가서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아이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를 가 본 어느 날,

점심시간 종소리를 맞춰 뛰는 모습은 예전 우리가 학교를 다닐때랑 똑같았다. 근데 이 녀석들이 식당으로 뛰지를 않고 죄다 매점으로 뛰는게 아닌가?

이상타! 왜 점심시간에 매점으로 ??

매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구동성 주문하는 것이 모두다 수저를 달라고 했다.

수저를 사는 아이들을 보니 대부분 다섯벌씩 천원여치를 사고있다.

그 중 한 아이를 잡고 물어봤다.

Q “왜 수저를 그렇게 많이 사는데?”

A “친구들끼리 나눠서 써요. 친구 다섯 명이 요일을 정해서 천원여치 사서 나누죠. 예를 들어 내가 월요일에 사면, 딴 친구가 화요일, 그리고 딴친구가 수요일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서 나눠요.”

Q “집에서 숟가락을 챙겨 오면 안되나?”

A “밤 열 두시는 돼야 집에 들어 가고 7시면 나오는데 숟가락 챙겨 오기가 힘들어요. 1학년때는 가끔 챙겨도 왔는데 2학년 때부터는 거의 매점에서 사서 쓰죠. 친구들 거의 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우리 집 아이도 수저를 챙겨 가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다. 점심시간임에도 식당으로 가서 영양사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봤다.

Q “선생님 아이들이 일회용 수저를 쓰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A “한 80% 이상의 아이들이 일회용 수저를 쓴다고 보면 될 겁니다.”

Q “그러면 수저를 지급 하는 게 맞을 것 같은 데 선생님 생각은요?”

A “수저만 사 주면 저희가 어차피 직원들 수저를 관리하고 있으니깐 같이 세척해서 사용하면 저희도 좋죠. 조금 힘은 들지만 일회용을 안 쓰도록 교육도 하면서요. 그냥 보고 있기는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곧이어 열린 운영위에 급식실 수저 비치건을 올렸다.

아니나 다를까 반대의견이 많았다.

(행정실장) “위원님 ,저가 학교를 여럿 다녔습니다만 학교 급식실에 수저를 두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두면 금방 없어집니다 수저를 사다 채우느라 아마 정신 없을겁니다.”

(학부모 위원) “저도 반대합니다. 요즘 사스다 뭐다 하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야 하는데 집에서 깨끗이 씻어서 보내야지 학교에다 맡기면 깨끗이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원위원 ) “모르긴해도 급식실에도 수저 씻는다고 종사원이 한명 더 있어야 된다고 안 하려고 할텐데요.”

(저) “제가 알아봤습니다. 급식실에서는 수저만 사다주면 교사들 수저 씻고 삶을 때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천 명 수저를 사도 30만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저 분실을 말씀 하시는데 엄격한 규율속에 음

직이는 군대에서도 수저분실은 일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가 군대있을 때도 휴가가는 병사들이 돌아올 때 수저를 10벌 20벌 사 오기도했습니다. 처음 30만원으로 1000세트를 사고 일 년에 최대로 많이 망실되어 50%가 없어져 다시 채운다 해도 45만원이면 됩니다. 이 후에 계속 50%씩 없어진다고 잡아도 연 15만원이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고 하십니까? 우리아이들이 매점에서 수저를 사기 위해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알거나 합니까?

1주일에 천 원이면 한달 4주에 4천원 일년이면 최소 4만원이 듭니다. 아이들 절반만 사서쓴다해도 한 해 우리 아이들이 수저를 사기위해 매점에 쓰는 돈이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원이 듭니다. 일회용을 못 쓰게 교육해야 되는 학교에서 일회용을 쓰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에 지돈 내고 밥 사먹는 사람이 숟가락 사 들고 가는 것 봤습니까? 어느 곳 어디에서 밥먹는데 숟가락 들고 가든가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애원을 해도 이놈의 학교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학부모위원이라는 엄마는 “나는 우리 아이 숟가락 지금도 매일 씻어서 넣어 보내는데 엄마가 성의가 없다는등 그 정도는 엄마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등” 헛소리만 해댔다.

아무래도 이번 안건은 잘못 낸 것 같았다. 학부모 위원들은 당연히 찬성 할 줄 알았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의 안건 정도는 학교 눈치를 봐야하는 학부모들이라도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무조건 이규남이 안건을 내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있지!!

이런 꼴을 한 두번 봐야지, 이미 안건을 올릴 때 결과는 예상을 했었다. 어차피 손들기 하면 뽀죌하게 나 혼자 손 들고 안건은 부결이 되고만다.

(나) “저가 오늘 낸 안건은 아마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수저 비치건은 철회 하도록 하겠

습니다. 하지만 안건을 철회하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부터 교직원 식당에서도 수저를 치우십시오. 모든 교직원들도 내일부터는 수저를 각자 들고 오도록 교직원들에게 알리십시오. 교직원들이 2800원씩 한 끼 식사를 하십니다

이 정도의 식사는 시중에 나가면 5천원은 줘야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체급식을 함으로써 교직원들이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왜 아이들은 수저가 없고 교직원들은 수저를 공급받아야 되지요?”

(잘난 교원위원) “위원장,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500원이고 우리 교직원들은 2800원으로 3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저값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이 양반 생활지도 부장이라ندا>

(저) “행정실장님, 설명을 잘 해주시죠. 교직원 식대는 부가세가 붙어서 300원이 더 하는거지요? 그리고 그돈은 식대로 세금 공제를 다 받아서 결국은 더 내는게 아니지요? 학생들은 수입이 없으니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부가세를 붙이지 않았다고로 교직원들이 비싸게 식사를 하는게 아니죠?”

(행정실장) “예, 그건 이규남 위원이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교직원들은 식대를 환급 받습니다. 그래서 더 내는것은 아닙니다.”

(저)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돈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싸게 식사를 제공 받고 있다는 걸 아셨으니 교장, 교감 선생님 내일부터는 수저 챙겨들 오십시오. 제가 급식실에다 얘기해서 수저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째됐을까요?

그 날로 수저 천 벌을 사서 급식실에서 비치해줬는데 매점의 매출에 큰 손실이 있어서 매점 주인에게 송구한 생각에 지금도 마음이 많이 무겁다.

학부모 운영위원 하기 참 쉽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지내면 뿌듯한 일이 참 많다.

## 학교폭력의 원인을 잘못 짚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근본대책이 아니다

정부 각 부처와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폭력을 잠재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을 인성교육 부족, 게임·인터넷 등 사회 문화적 영향 탓으로 돌리며 경쟁교육 책임을 피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학생 인성교육에 주력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비중을 증가하고 정작 인성함양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술, 체육 과목은 한 번에 해버리는 집중이수제를 편성했다. 성장기 변화에 따른 정서함양, 활발한 신체 활동기회 등을 무시하고 대학 입시 위주의 과목을 강요하면서 인성교육을 실행하겠다는 모순에 빠졌다. 특히 방과 후 시간도 입시에 필요한 과목으로 선택하고 배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인성교육이 강화될 수 없다. 인권교육에 대한 언급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와 타인, 친구와 교사, 공동체를 존중하는 심성은 인권의식에서 출발함에도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을 어린이집 평가 요소에 적용시키고 입학사정관제에 인성 평가를 포함한다는 것은 편의주의 발상이며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입학사정관제는 부모의 지원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더욱 잘 준비할 수 있고, 인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미국에서 우수한 유대인의 대학 진학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음을 상기한다면 입시에 인성요소를 반영한다면 대학은 '인성'도 우수한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있고 가정 배경이 여유롭지 않은 학생은 인성도 엉망이라는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학벌주의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학생 상담을 강화하기 위한 복수담임제는 실효성이 있기 보다는 업무와 책임소재 규명 등 혼선을 빚을 것이다. 성적 경쟁이 학교 서열이 되고 학교평가로 이어지는 마당에 상담 업무를 위해 수업지도에 소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생 수 및 학급 수 조정, 업무 조정 방안에 대한 제도적 정비 없이 실시하는 복수담임제는 형식적 상담에 국한되거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상담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담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누적 기록하는 것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장기 보관하여 진학에 활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받았다면 장기 기록 보유로 인한 이중처벌은 가지 않아야 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해야 한다. 그 밖의 일진경보제는 의미는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일진회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가벼운 폭력 문제를 조직적 폭력으로 오인하거나 특정 학군이나 학교를 낙인찍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학생 치료요양비 선지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다만 요양급여뿐 아니라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번 대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처벌과 성과, 결과 중심의 방식에서도 볼 수 있다.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사와 학교에 각종 포상과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인성을 ‘역량’의 하나로 인식하는 능력 중심의 발상이다. 게다가 교사들을 교육의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인성계발’ 유능교사와 무능교사로 분리하게 된다. 개인 교사의 역량에 따라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 책무성 강화, 자녀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가정방문 면담은 노력에 비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 현 교육과정과 입시 경쟁 체제에서 담임교사는 수업 외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학부모회의 자치프로그램과 일상적으로 학교, 교사들과 소통과 협력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와 가정, 교사와 학부모의 자녀 이해와 소통 강화는 학부모회 법제화, 교사와 학생회의 법제화를 통한 상호 존중과 책임 인지, 자발적 규약 제정과 실천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은 각종 선도학교 운영, 주제별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가정의 책무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강조하다 보니 학부모가 교사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학부모는 학교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을 개입시켜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처벌과 격리 중심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이 존중되고 서로 나누고 아끼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위해서는

1. 일제고사 폐지 및 과도한 시험부담을 줄이고 경쟁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2. 창의성 교육이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2009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야 한다.
3. 학생과 교사 상담이 가능하고 맞춤형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OECD수준으로 감축하여야 한다.
4. 학생회 법제화, 자치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문화를 바꾸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전면화해야 한다.

2012년 2월 8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2011년 사교육비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한 논평

### ◎ 실제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교육비 부담 고통을 외면한 꺾어 맞추기식 발표

최근 교과부는 초·중·고교 학생의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음에도 통계 결과를 사교육대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교과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발표는 학부모의 실제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교육비 부담 고통을 외면한 꺾어 맞추기식 발표이다. 사교육비 증감 분석을 위한 산출 기초를 재정비하여 현실을 솔직히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 사교육비 및 사교육참여율 감소는 전체 학생 수가 줄어 든 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2011년 총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452억 원(3.6%) 줄어 20조1000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학생 수가 지난 해 보다 24만 9천명이 자연 감소한 결과이다. 이를 반영한다면 실제 사교육비는 전년대비하여 0.2%가 감소했을 뿐임에도 3.6%가 줄었다고 했다. 교과부는 총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홍보를 위해 학생 수 자연감소분을 반영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신뢰할 수 없다.

### ◎ 방과후 학교, EBS, 어학연수, 특강비, 대입컨설팅비, 대입재수생 사교육비 등 사교육 관련 비용을 포함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교과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EBS 연계 정책의 성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원비로 지출하던 사교육비가 방과후 학교, EBS 교재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지 여전히 학부모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명백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각종 사(私)부담 교육비를 통계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중간·기말고사, 일제고사 대비 특강비,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컨설팅비, 대입재수생 사교육비 등도 통계에서 제외했다. 온갖 이유로 빠져나가는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포함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 ◎ 가계부채 증가,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감소 현상을 고려하지 않았다

물가상승, 장기화 된 고용불안정으로 가계소득은 감소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 생활고 탓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이런 방식의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교육비가 감소한 이유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성과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 ◎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크고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한 달 평균 사교육비로 초등학생 24만1000원, 중학생 26만2000원,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은 25만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어, 사회, 과학 사교육비는 감소하였으나 영어, 수학은 오히려 각각 1.3%, 2.9% 상승했다. 이는 교육과정의 불균형과 국가영어능력시험 도입과 수리논술시험 등으로 인한 사교육이 더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특목고, 자사고,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영어, 수학 사교육을 부추기는 입시정책의 결과이다.

## ◎ 사교육비 분석을 위한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계를 재정비하여 현실을 솔직히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도 두 배’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일제고사 확대, 학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어학시험제도 변경, 대학별 본고사형 수리논술 전형 등으로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부모 교육비를 가중시켜왔다. 일반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율이 73.5%인데 비해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참여율이 이보다 10% 가량 높은 통계 결과를 보아도 사교육은 여전히 번성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현실과 괴리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없이 엉성하고, 목표에 끼워 맞추는 통계 발표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사교육비 분석을 위한 산출 기준을 세분화하고 통계 자체를 정비하여 현실을 솔직히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임기 마감 1년을 앞둔 지금 사교육비가 증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중·고교 교육과정 정상화, 대학서열과 학벌주의 폐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2012년 2월 20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 개학 코앞 체육수업 결국 파행

#### 부산 99개 중학교 인력 못 구해 “주 4시간 불가능”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확대 정책이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을 막겠다며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새학기부터 주당 2~3시간이던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4시간으로 늘릴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지만 스포츠 강사와 체육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일선 중학교가 두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시내 169개 중학교 중 체육수업 시간 확대에 맞춰 스포츠 강사 추가 채용계획을 마친 학교는 70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수업 시간을 늘리겠다고 한 99개 중학교가 이에 필요한 교사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신학기 체육수업 시간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는 교과부는 부랴부랴 스포츠 강사의 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학과 재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일선 학교를 독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발만 불러오고 있다. 시내 한 중학교 교장은 “대학 재학생이 학기 중에 자기 공부는 내팽개친 채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말이냐”면서 “아무리 급하다지만 이게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가 할 정책이냐”고 비판했다.

부산일보/ 2012년 2월 28일/ 노정현 기자

### 다문화 가정은 연민의 대상 – 관광객·유학생은 서양인 – “피부색 고정관념 심어줘”

초등학교 교과서 안 인종편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다문화인권교육센터’는 2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적십자회관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열고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개정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사회와 도덕, 국어 교과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과서는 다문화 관련 기술방식을 서구 중심으로 표현하고, 다문화 가정을 연민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이를 보고 배우면 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편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 안 문학작품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뽀뽀롱 스타킹’ ‘크리스마스캐럴’ ‘피노키오’ 등 문학작품 97.7%가 유럽과 미국 작품이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와 중남미 작가의 작품은 단 한 편도 없었다.

국제신문/ 2012년 2월 28일 /김화영 기자

### 부산찾은 이주호…학교폭력 대책 혼란 여전

#### 복수담임제·체육시수 확대 등…27일 간담회서 “학교 자율” 강조

교육과학기술부 수장은 시종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을 가이드라인으로 삼되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달라”고 강조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27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토현중학교를 방문해 학생·교사·학부모 대표들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 장관에게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근 교과부가 서둘러

내놓은 일련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혼란스러운 심정을 드러냈다.

학부모 김해성 씨는 “다음 달 새 학기부터 중2 교실에 교사 2명이 담임을 맡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는데 담임 간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래도 교사도 “2012학년도 교육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달 중순에야 지침이 내려와 전혀 예상치 못했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국제신문/2012년 2월 27일/조봉권 기자

### “학부모 31%, 교사 면담 한학기 한번도 안해”

#### 초·중·고생 평일 1시간 홀로...부모와 대화 46분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31%는 한학기에 교사와 한 번도 면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평일 평균 1시간을 혼자 지내고 부모와 대화시간은 하루 평균 46분이었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조사한 '2011년 학부모의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생 학부모 1천538명 중 한 학기에 선생님과 면담 횟수가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31%였다.

자녀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평균 46분이었다. 26~50분 이하(42.7%)가 가장 높았고 25분 이하(26.5%), 51~100분 미만(2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일 학교 후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58분이었다. 고교생(49분)이 가장 짧았고 중학생(68분)이 가장 길었다. 휴일에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은 평균 71분이었다. 휴일에는 초등학생(50분)이 가장 짧았고 고교생(91분)이 가장 길었다.

학교가 중점을 두야 할 역할은 인성 및 사회성 지도(40.7%)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교과학습(21.5%), 특기·적성 개발 및 교육(20.1%), 진학 및 진로 지도(11.3%), 체육·예술 활동(8.1%)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 2012년 2월 27일

### 학교 폭력 해결, 앵그리버드가 도와드립니다!”

부산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신학기 개학에 맞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채팅상담’을 29일 시작했다.

‘앵그리버드’는 핀란드의 한 게임업체가 제작한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돼지에게 알을 뺏겨 화가 난 새들이 스스로 새총의 총알이 되어 돼지를 공격하는 게임이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해당 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캐릭터 활용에 합의했다.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 제작에 나선 것은 서부경찰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부경찰서는 홍보물 제작과 함께 청소년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상담·신고 전용번호를 운영 중이다. 서구 내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전용번호를 스마트폰에 저장한 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마이피플’에 등록하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가능하다.

부산일보 / 2012년 2월 29일/김한수 기자

## 학부모알림란

### ◆ 3월 회원만남의 날

새학기 학교참여 어떻게 할까요? / 3월 14일 10시 30분 참학부산지부사무실

한새학교



#### 제4차 한새학교 가족의 날

지리산 둘레길 5코스와 사람 사는 정 그리고 세상 사는 맛

- 지리산 가는 날 : 3월 10일 (토) ~ 11일(일) (1박 2일)

##### ● 참가비 :

- 당일 귀가형 : 학생 26,000원, 성인 28,000원 (3월 10일 식사는 각자 준비합니다.)

(왕복교통비, 진행비, 여행자보험)

- 1박 2일형 : 학생: 83,000원, 성인 95,000원

(단체 숙소 기준, 가족 단위의 숙소를 원할 시는 추가 경비 별도 산정함)

##### ● 코 스 :

- 당일 귀가형 : 지리산 둘레길 5코스 걷기, 산청 함양사건 추모기념관

- 1박 2일형 : 당일귀가형 + 실상사 + 서암정사 + 벽송사 + 산청 동의보감촌과 산청 한의학박물관

(단, 1박 2일형 최소 참가인원 - 10명 이상, 만약 10명 미만일 경우 모두 당일 귀가형으로 운영)

● 참가신청 : 장유성 교육팀 차장 (010-2803-7380)

#### 제5차 국어, 사회 교과서 체험 학습

● 2012년 3월 24일 토요일 한새학교 역사체험학습 안내 ●



일본가는 박제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역사체험대

##### 주요 활동 내용

1. 경주, 울산, 양산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 박제상과 박제상의 부인, 딸과 관련된 유적지 찾아 그 유래를 알아보기

- 양산 효충사와 춘추 공원 (고구려와 일본으로 떠나기 전의 박제상)

- 경주 망덕사지와 경주 남천의 장사벌지

(일본으로 떠나는 박제상을 만나지 못한 박제상 부인이 울부짖던 곳)

- 울산 정지항 유포석보의 일본 가는 배 출발지, 치술령 일대의 박제상 유적지

(망부석, 치산서원, 치술신모사지 비석, 비조마을, 은을암, 망부천)

- 박제상 유적공원과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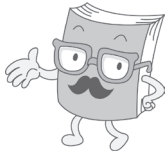
## 2.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에 나타난 박제상 관련 기록 비교해 보고

박제상의 행적을 통해 당시의 신라, 고구려, 왜국의 역사적 관계를 탐구해 보기

- **일 시** : 2012년 3월 24일 (토요일) 오전 8시 최초 집결지에서 출발
- **참가비** : 성인 44,000원, 어린이 42,000원  
(입장료, 체험비, 학습자료집, 체험지도비, 여행보험료, 왕복교통비, 추수지도비 등 진행 경비 및 학습 지도비 일체, 중식 포함)
-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 음료수 및 간식, 영상기록도구(디카, 휴대폰) 등

## 제6차 교과서 체험 학습

- 2012년 4월 7일 토요일 한새학교 역사체험학습 안내 ●



시대는 달라도 모두 다 한결 같은 나라 사랑의 마음,  
곽재우 장군과 의병, 백산 안희제 선생의 삶을 배우는 여행

### 주요 체험 활동

- 충익사 - 의병탑 · 경내 사당 · 기념관 견학 : 의병활동에 대한 내용 살피기
- 솔바위와 정암루 · 정암진 전투 이야기 듣기
- 기강나루와 보덕각 : 기강 전투 이야기 듣기
- 곽재우 장군 생가 둘러보고 현고수에 대한 이야기 듣기
- 백산 안희제 생가를 찾아 안희제의 삶과 백산 상회 배우기
- 의령 박물관 관람
- 천연기념물 신라통 중의 우흔 찾아 보기
- 창암진, 망우정 둘러 보기
- 삼성그룹의 창시자 호암 이병철 선생 생가

- **일 시** : 2012년 4월 7일 (토) 오전 8시 00분 최초 집결지 출발
- **참가비** : 성인 44,000원, 어린이 42,000원  
(입장료, 각종 체험비, 체험지도비, 학습 자료집, 여행 보험료 등 진행 경비 일체, 중식 포함)
- **준비물** : 필기도구, 개인 음료수 및 간식, 양치도구 등

###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한새학교 사업팀 -

☎ 051-556-1799(사무실), 010-2803-7380(사업담당자)

■ **참학부산 홈페이지** : <http://www.hakbumo.or.kr/pusan>

■ **한새학교 카페** : [cafe.daum.net/gkstogkrry](http://cafe.daum.net/gkstogkrry) (영어자판으로 한새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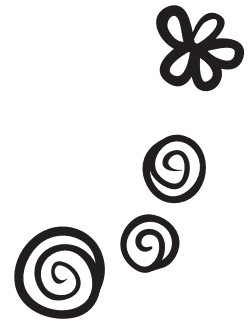
■ **참학부산 메일** : [hakbumo1@empal.com](mailto:hakbumo1@empal.com)

■ **한새학교 전용메일** : [ysjang12@hanmail.net](mailto:ysjang12@hanmail.net)



## 2월 이렇게 보냈어요

- 2월 1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시의회 (이규남 토론자 참여)
- 2월 3일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정기총회 : AT센터 (김정숙)  
부산교육연구소 이사장 이취임식 : 이광호 이사장 취임 (곽선희, 이규남 참석)
- 2월 5일 MBC시사포커스 '기성희비와 반값 등록금' 토론자 출연 (김정숙)
- 2월 7일 시의회 방청, 교육희망네트워크 워크숍 및 총회 : 전교조 (곽선희, 김정숙)
- 2월 8일 부산급식운동본부 워크숍 및 총회 : YWCA (김정숙 강의)
- 2월 9일 시의회 방청, 식생활교육부산넷 이사회
- 2월 10일 학교급식생협 이사회
- 2월 11일 한새학교 : 포항 포스코와 포스텍
- 2월 14일 부산시인권조례 통과 자축연, 금정구 시민모임
- 2월 15일 학교급식생협 감사 (김정숙), 회원만남의 날 - 기성희비란? (김정숙 강의)
- 2월 16일 MBC라디오 '반값 교복' 인터뷰, 임원회의  
한새학교 포스터 지하철노동조합 검인 - 지하철 부착 (곽선희, 장유성, 김정숙)
- 2월 17일 수영구 '반값 교복법'제정 토론회 : 김정숙 토론자 참여  
라디오 시민세상 '기성희비' 녹음 (곽선희, 김정숙)
- 2월 19일 조명숙 고문님 아들 결혼 / 여행소모임 '사노라면' 오아사 기행 (장유성, 김혜례, 임주연)
- 2월 20일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 총회 : 서울 흥사단 (김정숙)
- 2월 21일 초등 예비학부모교실 : 책과 아이들 (장유성 강의) / 부산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곽선희)
- 2월 22일 회원탐방 - 김영희, 전국이사회 : 경남지부 (곽선희)
- 2월 23일 학교급식시민생산자 생협 정기총회 : 귀농학교
- 2월 24일 전국교수노조 대의원대회 및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특강 (장은숙, 곽선희, 윤영근, 장유성, 김정숙)
- 2월 27일 영화소모임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이' : 곽선희, 백미영, 최경희, 김정숙
- 2월 28일 초등학교과서 속의 다문화인권 연구 토론회 (곽선희, 김정숙) / 생태사회 시민부산포럼 : 부산일보 (김정숙)
- 2월 29일 2012 부산희망 정책워크숍 - 교육부분 김정숙 발표 : YWCA / 라디오시민세상 '학교폭력' 녹음 - 노기섭





## 2월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류봉심, 허미경, 채승영(2만), 김정숙(2만), 박옥화(2만), 김옥숙(2만), 이금숙(2만)신영희, 곽선희(2개월), 박성미, 이행봉, 김기영, 조금제, 박은숙, 송경희, 홍동희, 박희옥, 이광호, 김윤자, 이일권, 공외정, 류정애, 김중철(2만), 윤내경(2만), 윤신옥, 김형선, 최경희(a), 조명숙(3만), 김정원, 문재경(5천), 김은주, 윤연섭, 조석현, 노희정, 하주연, 맹일영, 전순실, 손진숙, 홍정희, 이남숙, 최경희(b), 이희주, 정윤숙, 최한, 이재희(5천), 고혜경, 신수자, 최승희, 김현준, 심미숙(2개월), 유은정, 김수영, 이혜숙, 양윤자, 김경선, 심성보, 곽차섭, 박미순, 김경희(a), 서기철, 박무준, 정수련, 황선애, 허운영, 함현주, 지영경(5천), 김종찬, 황송미, 정동희, 차성환, 고창민, 황보덕, 오봉숙, 김동철, 유명희, 김석준, 곽태순, 장순옥, 이종명, 장희정, 장지숙, 임석규, 이영주(2만), 신석열(2만), 김태만, 박유미, 송명희, 곽은순, 장유성, 신지원, 허미자, 김준연, 이승중, 민문식, 김익수, 이성하, 정재천, 김원재, 장동제, 김진환, 이규남(2만), 임주연, 송기수, 송철동, 이선애, 김정애, 주우명, 권서용, 김경숙, 배종만, 백미영(5천), 문명숙, 김법기, 최은화, 서인석, 강순금(2만), 임창영, 김정열(5천), 이정형, 강정아, 손건태, 조원국, 남광우, 서권석, 천갑경, 김춘미, 이진희, 백점단, 안종기, 최정홍, 김연주, 황은옥(2만), 김곤, 서정호(a), 문혜정, 장말선, 백성희, 최정미(3개월), 서정호(b), 김지원, 박경아, 최영주(3개월), 정연재, 문영식, 우성만, 정명주(2개월), 왕병구(2만), 강은조, 서경애, 노기섭, 장현숙, 김영미, 김경준, 김상현, 김현봉, 고내현, 노영민, 부지환, 이재홍, 김혜례, 강재성, 최중수, 박덕수, 문인숙, 이병숙, 윤영근, 권인근, 이미옥, 김성희, 박귀남, 김금련(3개월), 김재홍, 성인심, 배문주, 손희정, 권영순, 임영선, 김경희(b), 박준건, 강아련, 김옥랑, 김성미, 이수진, 이혜영, 서석태, 이인경(5천), 조정화, 주정현, 김영희(b), 이주현, 편국자, 김영숙, 이정인, 최지선, 최점순, 여진호, 조병준, 김동희, 이내훈

### ■ 2월 결산 보고

수입	지출내역	지출금액	이월금
이월금 4,769,233	중앙 분담금	593,260	4,070,953
	전국총회참가여비	454,800	
회비수입 2,180,000	사무실 운영비	444,960	
	연대사업비	390,000	
후원금 0	상근자월급	500,000	
	소식지 발송비	99,200	
이자수입 0	소식지 인쇄비	300,000	
기타수입 178,940	사무실 임대료	275,000	4,070,953
수입 합계 7,128,173	지출 합계	3,057,220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 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040-12-105061-8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 이번 달에는 전국총회 참석과 연대단체 분담금 지급으로 많은 지출이 있었습니다.
- 기타 수입은 한새학교 기 지출된 금액 환불입니다.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 주요사업

###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 출판·홍보활동

####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는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시 진구 양정1동  
352-2번지  
(야마하피아노 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